이강인, PSG 유니폼 판매량 에이스 음바페 앞질렀다

이강인(22)의 인기가 파리 생제르맹(PSG)의 팀 동료이자 팀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25)를 넘어섰다.

PSG 소식에 정통한 압델라 불마 기자는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약 2,330만 달러)에 합류한 한국인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이후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면서 "음바페를 살짝 앞질렀다." 고 밝혔다.

▲ 지난 7월 파리 생제르맹(PSG) 입단식 행사에서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하는 이강인. 사진=PSG SNS

이강인은 올 여름 PSG로 합류했다. PSG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2028년까지 장기계약을 맺을 만큼 PSG 구단은 그의 장래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강인은 파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하지만 입단 후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강인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했다. 이 때문에 PSG는 구단의 서드(세 번째)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이강인을 공식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에이스 음바페는 물론 마르퀴뇨스, 우스만 뎀벨레 등과 나란히 섰다.

이강인이 합류하면서 PSG는 아시아 투어 속에 한국 방문을 긴급 편성했다.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강인의 잠재력을 높게 본 것이다. 이는 유니폼 판매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이강인의 팀 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 재신임

2년 연속 디비전시리즈 조기 탈락한 LA 다저스가 내년에도 데이브 로버츠(51) 감독 체제를 유지한다.

17일 'MLB.com' 에 따르면 앤드류 프리드먼(47) 다저스 야구운영사장은 2년 연속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는 조직 실패라고 규정하고 로버츠 감독이 다저스 감독으로 9번째 시즌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이브 로버츠 감독.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부터 다저스를 이끈 로버츠 감독은 7번의 지구 우승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1회, 준우승 2회의 성과를 냈다. 최초 3년 계약으로 부임한 로버츠 감독은 2018년 시즌 후 4년 재계약을 했고, 2022년 시즌을 앞두고 3년 연장 계약으로 2025년까지 보장받았다.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있고, 내년에도 지휘봉을 그대로 잡는다.

다저스는 올해 정규시즌 100승으로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지만 디비전시리즈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3전 전패 당했다. 지난해 111승을 거뒀으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1승3패로 무너진 데 이어 2년 연속 디비전시리즈 탈락했다.

로버츠 감독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프리드먼 사장은 오프시즌 전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리드먼 사장은 "우리 팀에는 정말 재능 있는 젊은 투수들이 많다. 그들은 올 시즌 우리 팀을 도왔고, 내년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면서 선발투수 보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 "선수 생활 마지막은 한화"

▲ 2023시즌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류현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현진(36)이 18일 2023시즌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은 한화" 라고 말했다.

18일 '마이데일리' 에 따르면 류현진은 2023-2024 FA 시장에 나간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8,000만달러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류현진은 이번 FA 시장에서 1티어, 특급은 아니다. 아무래도 거취 결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는 얘기가 일찌감치 흘러나왔고, 이날 입국 기자회견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단, 언젠가 친정 한화 이글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히 했다. 류현진은 늘 "선수생활의 마지막은 한화" 라고 말해왔다. 이날 그 질문이 나오자 "그 마음은 변함없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은 건강하게 돌아와 건재를 과시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2024시즌을 준비한다. 거취 관련 결정은 에이전시에 맡긴 상태다. 기존 비 시즌 루틴대로 휴식 후 개인훈련에 들어간다.

류현진이 내년에 한화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메이저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팀이든 단기계약으로 인기가 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온다. FA 시장에서는 4~5선발을 찾는 팀은 늘 있었기 때문이다.

149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5	6		4		9			
					1	4	8	
			6	2				5
3	7			9			1	
		1	5					2
	2				4		3	
6	5					2		
		3		4		7	5	
4		7		1				9

낱말퍼즐 정답

	1연		2훈	련	3소		
4한	단	지	몽		5파	6천	
바			7자	금		신	
8탕	9진		회		10비	만	
	11퇴	근		12자		13고	14역
	양		15함	포			부
	16난	17색		18자	급	19자	족
		20깔	때	기		위	